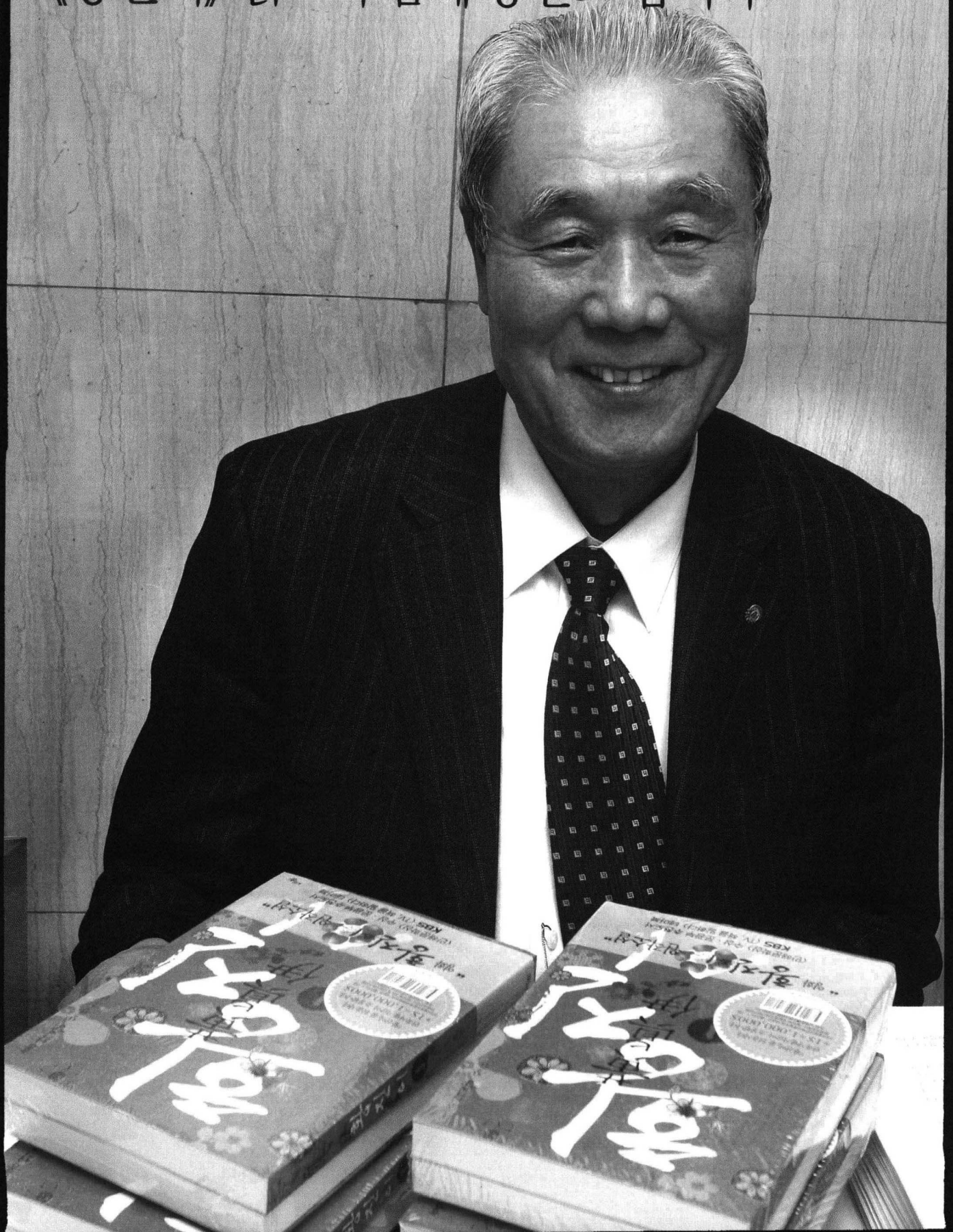


대훈서적 김주팔 사장의 색다른 통일 이야기

《황진이》 읽으며 함께 통일로 갑시다



황진이 열풍이 거세다. 드라마는 2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고공행진하고 있고, 영화도 곧 선보일 예정이다. 그러나
그 원전이 북한작가가 쓴 소설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은 듯하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4년부터 정식으로 출간되고 있는 《황진이》의 저자는 《임격정》의 작가로 유명한 벽초 홍명희의 손자 홍석중 씨이다. 그는 1979년부터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로 활동 중이다. 《황진이》의 국내 출간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대전 대훈서적 김주팔 사장이다. 눈 밝고 귀 밝은 독자라면 ‘대훈서적’, ‘김주팔’ 하면 북한서적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실제로 김주팔 사장은 4,000여 종 24만여 권의 북한서적을 소장하고 있어, 북한서적을 남녘에 알리는 북한서적 전도사인 셈이다. 1953년 발간된 문예월간지 <조선문학> 전권, <리조실록>, <김일성 사상전집>을 소개한 사람도 바로 김주팔 사장이다.

그 사이 고비도 많았다. 김포공항에서 이적물이라는 이유로 중국에서 사들인 300권의 북한서적을 압수당하기도 했고, 조사를 받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북한에 대한 애정을 끊을 수 없었다.

아예 2002년 4월에 남북 교류를 확대 목적으로 서울평화문화교류협회를 설립해 통일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그 해 7월에는 서울평양문화교류협회 기관지인 계간 <통일문학>을 창간했다. <통일문학>에는 남북한은 물론 중국, 미국, 일본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 작가들의 글을 게재하고 있다.

《황진이》를 들여오는 데도 사연이 많다. 저작권 분쟁에 휩싸이기도 했고, 통일부에서는 배포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김 사장의 열정은 그 무엇도 꺾지 못했다. 2004년 1월 통일부는 “《황진이》가 사상이나 이념성이 없는 순수문학소설로 일반에 공개가 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렸고, 뒤이어 북한의 홍석중 작가와도 북한 이외의 지역에서 《황진이》를 출판할 수 있는 대외적인 출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경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6월 제19회 만해문학상 수상자로 홍석중 씨가 선정되었다. 북한 작가로는 최초로 남한의 문학상을 수상한 것이다. 지난

2006년 8월에는 남쪽 평론가들이 함께 쓴 《황진이》 평론집 《살아있는 신화 황진이》가 발간되었다.

11월에는 《홍석중의 소설 황진이 어휘 사전》이 출간되기도 했다. 이 책은 남북한에서 다 같이 쓰이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어휘와 북한에서만 쓰이는 어휘, 과거 서울에서 쓰였던 어휘 등 7,289개의 단어와 속담, 관용어를 풀이한 사전이다.

《황진이》를 소개하기 위해 애쓴 노력만큼이나 김 사장은 그 이윤을 북한과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황진이》 1권과 2권의 판매대금에서 1달러씩 적립해 100만 달러가 될 때까지 남북문화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핵이나 6자회담이나 하며 경색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보면, 예전 같으면 김주팔 사장은 붉은 낙인이 찍혔어도 벌써 찍혔어야 할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이럴 때일수록 문화교류를 확대해야 하지 않겠냐”며 사람 좋은 웃음으로 허허 웃는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기를 “많은 독자들이 《황진이》 읽으면 남북통일에 일조하는 것”이라며 《황진이》에 대한 진한 애정을 담아냈다. “평양에 작은 서점 하나 내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알고 살았던 한 서점인의 집념이 통일로 가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민**